

구술기록을 통한 민간인학살사건의 역사화*

이 주 영**

1. 머리말
2. 기억의 역사화와 구술
 - 1) 지배기억과 대항기억
 - 2) 대항기억에서의 구술사연구와 방법
3. 민간인학살사건의 기록화
 - 1) 구술기록의 수집 설계
 - 2) 구술기록의 실제 수집 과정
4.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한국 사회에 내재된 무수히 많은 대항기억들 중 ‘민간인학살사건’이라는 대항기억을 역사화 하기 위하여 구술이라는 방법론적 매개체에 대한 이론적·방법론적 논의를 시작해보기 위함이다. 즉 구술 자료의 수집에 앞서 ‘구술’이라는 행위의 근본적 바탕이 되는 ‘기억’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지배기억과 대항기억의 발생과정, 대항기억으로써의 구술이 가지는 의미,

* 이 글은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학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경북대학교 사학과 석사과정

소외된 기억들의 역사화 필요성을 이론화한 후 구술사연구방법론, 구술기록의 질적연구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통해 신뢰성이 높은 구술기록의 생산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초를 바탕으로 구술이라는 특정 방법론에 대한 정확한 숙지 아래에서 어떤 질 좋은 기록물이 생산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한 사례로써 민간인 학살사건의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에 대한 구술기록화 과정이 진행되었다.

주제어 : 대항기억, 구술사, 구술기록, 기록화, 민간인학살사건, 역사화

1. 머리말

기록을 통한 기억의 지배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기록은 단순히 아키비스트(Archivist)들에 의해 수집되고 관리되는 것이 아닌 일정한 권력과 사회적 배경에 의해 수집되고 관리되며 그것이 활용되어 역사화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선별된 기록을 통해 어떠한 사건을 상기하게 되고 그 기억은 사회적 기억¹⁾으로 재구성 되어 공식기록, 공식역사가 된다.

이처럼 정치적·문화적 필요에 의해 통제된 기록이 공식적 기억으로 역사화 되는 지금, 어떤 사건에 대해 침묵해야만 했거나 기억을 기록

1) 사회적 기억이란 어떤 사건이 집단들에게 기억되어 그 기억이 ‘일반화’되는 것을 뜻한다. 한 기억이 사회화되는 과정 속에서 국가에 의해, 국가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변질 되어 집단에게 주입되면 그것은 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적 기억이 된다. 예를 들어 ‘좌익’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빨갱이’ 라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기억이 사회화 되어 사회적 기억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수 없었던 이들의 소외된 기억은 공식적 기억에 대항하는 하나의 ‘대항기억(Counter-Memory)²⁾’으로 형성되어 왜곡된 기억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그리고 그 가치를 형상화 시킬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이야기로 전해 듣는 구술이며 구술을 통한 기억의 재현과 역사적 사건의 재구성은 민간인학살사건과 같은 한국사회의 소외된 기억을 기록으로 남겨 새롭게 역사화 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일깨워준다.

‘민간인학살사건’과 같이 소외된 기억을 대변해주는 방법으로 구술 기록은 일반인들의 실존적 삶과 소외된 기억을 공식적 기록으로 승화시켜 보편적 학문, 즉 역사화 시키는 것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매개체로 볼 수 있다. 구술이라는 개인적 경험에 기인한 비공식적인 기억의 목소리는 기록화 되는 작업을 거쳐 공식적 기억에 대항하는 대항 기억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이는 객관적인 역사가 될 수 있으며 공식적인 기억과의 끊임없는 대면과 충돌로 새로운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구술을 활용한 연구 성과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구술의 근본적 현상인 기억에 대한 논의 그리고 구술기록의 수집과 이를 바탕으로 소외된 기억의 역사화에 대한 논의를 한층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었음을 뜻한다. 대표적으로 기억과 기록의 상관관계로부터 역사를 재해석하는 연구³⁾, 구술사의 이론적, 방법론적 의미를 고찰한 연구⁴⁾ 그리고 민간인학살사건과 같은 소외된 기억을 구술기록을

2) 대항기억이라는 개념은 푸코에 의해 개념화되었다. 이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표명한 역사나 담론과 다른 과거를 의미한다. 권귀숙, 『기억의 정치』(문학과지성사, 2006), 23쪽.

3) 대표적으로 권귀숙, 『기억의 정치』(문학과지성사, 2006); 안병직, 「한국사회에서의 ‘기억’과 ‘역사’」, 『역사학보』 193(2007); 양호환, 「집단기억, 역사의식, 역사연구」, 『역사교육』 109(2009); 최호근, 「집단기억과 역사」, 『역사교육』 85(2003) 참조.

4) 대표적으로 권명숙, 「구술기록의 수집 절차에 관한 연구: 민간인 학살사건 도

통해 역사화한 연구⁵⁾를 중심으로 그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주로 인류학자, 역사학자, 사회학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이 글 역시 그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앞의 선행연구들이 세분화된 주제에 따라 기억과 기록, 구술과 역사화를 개별적으로 나누어 연구를 했다면 이 글은 기억, 기록, 구술사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역사화의 필요성을 함께 보여줌으로써 공식적 기록의 재생산에 대한 아키비스트의 역할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절차에 맞는 구술기록의 수집을 통해 질 높은 기록을 생산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한 연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억의 역사화 속에서 생겨난 지배기억, 그리고 그에 대항하는 대항기억의 발생과정을 고찰하여 지배기억에 대항하는 대항기억으로써의 구술이 가지는 의미와 이를 통한 소외된 기억의 역사화 필요성을 문헌연구를 통해 이론화하였다. 이 지식을 바탕으로 소외된 기억의 역사화에 있어서 구술기록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구술을 수집하고 기록화 하는 과정에 대한 구술사연구방법론, 역사화에 있어서의 구술기록의 질적연구방법론⁶⁾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게 된다.

큐멘테이션을 중심으로」, 2007, 경북대학교 대학원 기록학 석사학위논문; 권미현, 「구술사료의 기록학적 관리방법연구」, 2003,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 석사학위논문.; 윤택림, 함한희, 『새로운 역사쓰기를 위한 구술사 연구 방법론』(아르케, 2006); 이상태, 『현황과 방법, 구술: 구술자료·구술사』(국사편찬위원회, 2004); 한국구술사연구회, 『구술사 방법과 사례』(선인, 2005); 제임스 홉스, 유병용 옮김, 『증언사 입문』(한울, 1995); Paul Thompson, *The Voice of the Past: Oral History*,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참조.

- 5) 대표적으로 김경학 외 지음, 『전쟁과 기억: 마을공동체의 생애사』(한울 2005); 김귀옥, 「지역의 한국전쟁 경험과 지역사회의 변화: 강화도 교동 섬 주민의 한국전쟁 기억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71(2006); 박정석, 「전쟁과 빨갱이에 대한 집단기억 읽기: 해남의 한 마을을 중심으로」, 『역사비평』 2(2002); 윤택림, 『인류학자의 과거여행: 한 빨갱이 마을의 역사를 찾아서』(역사비평사, 2003); 이용기, 「마을에서의 한국전쟁 경험과 그 기억」, 『역사문제연구』 6(2001); 최정기 외 지음, 『전쟁과 재현: 마을 공동체의 고통과 그 대면』(한울, 2008); 표인주 외 지음, 『전쟁과 사람들: 아래로부터의 한국전쟁 연구』(한울, 2008) 참조.

- 6) 여기서 질적 방법론은 연구대상을 연구자가 사전에 준비한 지표를 통해 양적으

이러한 논의 후 실제 민간인학살사건의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에 대한 구술기록화 과정이 이어지며 이는 창수면에서의 민간인학살사건의 기억을 역사화 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단계로 볼 수 있다. 구술증언은 전수조사와 함께 구술생애사연구방법⁷⁾의 서사적 면접⁸⁾을 기초로 한 심층인터뷰⁹⁾를 통해 수집되었으며, 주요 구술자 연령은 그 시기 개인이 어느 정도 판단력을 가질 수 있었던, 또 청년의 나이로 학살에 직접적인 영향을 느낄 수 있었던 현재 70~80대 남성을 중심으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수집된 구술증언은 증언해제작업을 통해 기록화 하는 동시에 개인별피해현황카드를 통해 수집된 기록을 사건 유형별, 피해 현황별, 가해자 현황별, 피해자 현황

로 가공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대상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 및 재구성하는 방법론으로서, 참여관찰법· 민족지연구·구술사연구·생애사연구 등을 지칭한다. 특히 최근 연구에서 두드러지는 시도는 구술 자료를 통한 연구이다. 이희영,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행위이론의 관점에서 본 이론적 의의와 방법론적 원칙」, 『한국사회학』 제39집 3호(2005), 121쪽.

- 7) 여태까지의 일반적인 구술사연구는 개인의 지나간 역사에 대한 구술자료를 통해 과거 역사의 누락과 왜곡을 수정하거나 역사복원을 시도하는 구술사학적 목적에 중점을 두어 ‘큰 사회사’ 속 에서 소외된 다양한 계층, 집단의 경험 사례를 연구영역 안으로 끌어들이는 연구가 중심이었다면 구술생애사재구성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가 아닌 ‘왜 이렇게 이야기 할까?’ 라는 인식의 전환으로 다가가는 것이다. 이희영, 위의 글, 144쪽.
- 8) 서사적 면접이란 개인의 체험과 가치관, 그리고 인생의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 면접자에 의해 재단된 질문이 아니라 구술자의 자유로운 서술을 보장할 수 있는 면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구술자가 연구자의 질문에 자신을 방어해야 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인생의 주제들을 선택하고 배치하여 이야기하는 서사 구조의 형태를 띤다. 서사적 면접은 먼저 열린 질문으로써 구술자에게 구술을 유도하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시작된다.
- 9) 심층인터뷰는 보통 1~2시간 길게는 4~5시간에 걸쳐 이루어진다. 그리고 연구자가 채록된 인터뷰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는 제차 구술자에게 양해를 구한 후 심층인터뷰를 시도할 수 있다. 이 심층인터뷰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와 구술자의 라포형성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는 연구자의 끊임없는 열정, 구술자의 심정을 적극적으로 이해하려는 자세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별, 피해 일시별 등으로 유형화하여 아카이빙(Archiving)하였다.

2. 기억의 역사화와 구술

1) 지배기억과 대항기억

민간인학살사건을 역사화(Historicizing)하는 것에 있어 이론적 전제가 되는 기억이론은 프랑스 사회학자 모리스 알박스(Maurice Halbwachs)에 기초한다. 알박스는 개인은 기억을 상기하는 행위의 주체이고 개인으로 하여금 기억을 자각하게 하는 것들은 사회에서 비롯된다고 하였고, 그리하여 모든 개인의 기억은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전제로 집단기억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런 집단기억은 ‘사회적 틀’에 의해서 형성되어 지속되는데 그는 공간과 시간이 중요한 작동 요소라고 말하였다.

실제로 집단들은 공간이라는 장소를 통해 공간과 관련된 기억을 회상해 낸다. 그 예로 인천이라는 공간은 한국전쟁에서 아군이 전세를 뒤집게 된 인천상륙작전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기억되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맥아더라는 인물까지 기억해낼 수 있다. 즉 인천이라는 공간은 한국사회에서 북한이 도발한 전쟁에서의 극적인 반격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의미 있는 상징공간으로 기억되며 이는 또 민족의 집단적 정체성을 재발견해주는 기억의 착지점 역할을 한다¹⁰⁾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공간은 시간과의 결합으로 인해 더 공고해지는데, 시

10) 최호근, 「집단기억과 역사」, 『역사교육』 85(2003), 165쪽.

간은 계절과 같은 ‘자연적 시간’과 기념일, 경축일, 정치적 사건, 공휴일과 같은 ‘사회적 시간’으로 존재한다. 이 중 ‘사회적 시간’에서 시간의 의미는 단순한 시간이 아닌 당대의 사회적 분위기와 시대정신, 역사적 성격을 띠고 있는 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사회적 시간’속에서 집단은 동일한 기억을 공유하고 그 기억을 통해 자기 집단에 대한 귀속감을 확인한다. 그리고 이 귀속감은 집단의 공동의 기억 속에 집단만이 가지는 고유의 독특한 의미들이 자리 잡을 때 더 강화되고 오래 지속된다. 이러한 이론에서 본다면 집단기억은 ‘사회적 시간’과 불가분의 관계로 사회현상에 따라 집단기억이 변형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준다.

이러한 공간과 시간이라는 ‘사회적 틀’을 통해 집단기억이 형성되고 지속된다는 알박스의 이론에 더 구체적인 개념을 대입한 것이 독일의 문화학자 얀 아스만(Jan Assmann)의 ‘문화적기억(das kulturelle Gedächtnis)’이다. 아스만은 알박스의 ‘사회적 틀’에 구체적 의미들을 부여하여 문화적 기억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 즉 집단의 정체성은 집단 모두에게 공통적인 의미를 가진, 문화적 기억을 통해 강화되고 지속되는데 이는 기념일, 경축일과 같이 제도적으로 규정되어진 것과 단어, 문장, 텍스트, 춤, 장식, 문신, 음식, 그림, 기념물, 도로 등의 기호적 총체들로 구성된 것들로 전달되어 집단의 정체성을 보유하고 강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집단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근거를 기원에 대한 기억인 ‘신화’에서 찾는데 그것을 ‘정초기억(die fundierende Erinnerung)’이라 할 수 있다. 정초기억은 기원에 대한 과거의 기억을 상징이나 제의, 축제나 기념식 거행으로 현재에 투영시키는, 연출되고 경험된 기억이라 할 수 있으며, 정초기억이 기록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선택된 문화적의미를 전달하게 될 때 기록은 한 집단의 역사서, 국민국가의 국사가 된다.

역사는 공간과 시간이라는 사회적 틀에 의해 형성된 공식기억과 사회적으로 선택된 기록인 역사서의 접점에 위치한다. 기억이 없다면 과거를 다루는 역사는 없고 과거에 대한 기록이 없다면 역사는 기억에 대한 객관적 가치와 사실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역사 역시 무수히 많은 사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현재에서 재구성한 것, 즉 ‘선택적 기술’이므로 집단의 의도나 권력이 투영될 수 있다. 즉 역사는 공식기억과 공식기록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역사는 기록에 의해 또 기억에 의해 쓰여 지고 상징화되고 재해석되어 새로운 기억을 창출해 낸다. 즉 기억과 기록, 그리고 역사는 집단과 사회적으로 공유하며 영향을 받고 재해석되는 것으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사회적으로 선택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 그리고 국사에 지배 집단의 담론과 권력이 개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배집단은 자신들의 기원에 대한 역사를 만들고 현재에서 과거를 재구성한다. 그리고 여기에 시간이라는 사회적 틀로 형성된 당대 지배집단의 시대정신이 반영되고 이런 이데올로기는 기록을 해석하는 해석문화에도 영향을 끼친다. 우리는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 공통된 역사를 배우고, 교육을 통한 역사는 시대의 정신으로 표현되어 우리의 기억 속에 녹아들면서 공식적 기억, 한 집단과 사회를 대표하는 기억인 ‘지배기억’으로 승화된다.

지배기억은 공식적 역사를 대표하는 기억으로 사회의 지배집단에 의해 승인된 기억이다. 여기서 지배기억이 당대 지배사회의 이데올로기, 시대정신에 의해 영향을 받아 집단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공식적 기억, 역사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반대로 기억이 지배기억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일원화 되지 않고 사회에 따라 여러 기억이 존재할 수도 또 변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병렬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층적

으로 구성된다는 사실도 함께 유념해야 한다. 즉 사회에는 지배집단에 반대되는 소외된 집단이 늘 존재한다는 사실이고 소외된 집단에게도 그들의 기억이 존재하며 이는 지배집단의 기억인 지배기억에 대항하는 하나의 ‘대항기억’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먼저 기억이론에서 대항기억은 사회적으로 기억해내는 인간에게서 벗어나 인간 스스로 우연한 기회에 현재화된 기억을 찾는 것으로 정의한다. 즉, 개인과 관련된 사소한 기억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모습들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인데 사회를 주체로 보는 것이 아닌 자아로부터 기억을 해낸다는 방식으로 사고를 전환한 것이다.¹¹⁾ 이에 독일의 철학자 및 문화평론가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은 거대 인물이나 국가적 사건이 아니라 과거가 가장 보잘 것 없는 모습으로 정착된 인간 실존¹²⁾에 바탕을 두고 과거를 찾았고, 이런 발터 벤야민의 생각을 기초삼아 일상과 기억을 결합시킨 대표적인 이가 바로 독일의 구술사가 루츠 니트함머(L. Niethammer)이다.

니트함머는 구술사를 통해 개인들의 일상의 체험들을 이끌어내 보편화된 즉 사회화된 개인의 기억 속에서 존재하는 개인의 잠재적 기억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늘 반복되는 평범한 개인의 일상이 사회의 지배담론으로 의미화 될 수 없지만 개인들의 각기 다른 경험들도 충분히 소중한 경험으로 존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개인의 일상생활로 눈을 돌리는 행위는 공식적 기억에 윤색되지 않은 기억을 경험함으로써 집단의 이데올로기에 영향 받지 않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

11) 이러한 시각은 기억 그 자체를 논했던 베르그송의 이론으로 돌아가 자아로부터 기억을 찾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 베르그송에게 기억이란 정신의 삶이 전개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지나온 과거 전체를 고스란히 보존했다가 현재의 순간으로 연장하여 적절하게 활용하는 정신의 운동성을 말한다. 무의식적인 과거를 현재의 의식으로 연장하는 기억의 운동이야말로 불가분한 질적 변화의 연속인 정신의 실제적인 지속을 보장하는 것이다. 더 자세한 것은 베르그송, 김재희 옮김, 『물질과 기억』(살림, 2008) 참조.

12) 김학이, 「안 아스만의 “문화적 기억”」 『서양사연구』 33(2005), 249쪽.

낼 수 있다는 것으로 구술사를 추구했다.¹³⁾

그리고 이와 함께 대항기억을 이데올로기적 틀 안에 두어 집단의 지배 담론에 대항하는 기억으로 개념화 시킨 푸코(Michel Foucault)의 ‘대항기억’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푸코는 ‘진실’이라고 불리는 어떤 사실도 수많은 이데올로기들 중 하나일 뿐이고 그리하여 어떤 사실에는 자연히 권력과 지배담론이 투영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대항기억’을 개념화시켰다.

이러한 푸코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한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억작업도 함께 엿볼 수 있는데, 한국사회에서는 지배집단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기위해 실체화된 ‘지배기억:반공이데올로기’과 이에 억압받고 말하지 못한 기억을 밝히고 역사를 다시 쓰는 행위로서의 ‘대항기억:과거사청산’이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모습들이 푸코의 개념에 입각하여 보았을 때 결국 모두다 이데올로기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푸코가 말한 기억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담론과 권력구조를 비판적인 시각으로만 해석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지배집단이 역사를 통해 자신들을 변호하는 이데올로기로 헤게모니를 장악할 때, 이에 반대되는 기억들은 헤게모니에 대항하는 또 다른 진지전으로써의 ‘대항기억’의 성격을 띠 수 있게 되고, 바로 여기서 ‘대항기억’ 발굴의 중요성과 마주칠 수 있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대항기억’은 사회의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여 ‘지배기억’을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비로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항기

13) 기억이론에서의 대항기억은 집단기억에 이분법적으로 대립하는 개념보다는 또 다른 시선으로 다가간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데올로기적 담론이 개입되는 요소는 적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억을 역사적으로 해석하여 지배기억이 집단의 엘리트들에 의해 정의된 공식적 기억이고 지배집단의 이데올로기와 반대되는 기억이 대항기억이된다면 대항기억 역시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역발굴의 중요성을 사회구성원들에게 일깨워 주는 역할도 함께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이렇게 정의된 ‘대항기억’은 국가의 공식적 기억, 역사, 기록 앞에서 말하지 못하고 기록을 남기지 못한 이들의 기억을 찾는 것으로 실체화될 수 있고, 그 매개체는 역사적 사건을 체험한 이들의 실제 목소리, ‘구술’이라는 것으로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구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그들의 소외된 목소리를 기록으로 문서화시키고 역사화시켜 새로운 담론, 즉 ‘대항기억’이 형성될 수 있게 된다.

2) 대항기억에서의 구술사연구와 방법

위와 같이 살펴본 기억이론과 지배담론에서 ‘대항기억’을 실체화시키는 매개체는 구술이라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로써 구술은 개인의 주관적인 체험에 귀 기울여 아래로부터의 기억 만들기, 아래로부터의 역사 만들기 작업의 중심에 위치한다. 한국사회에서의 ‘대항기억’이라고 볼 수 있는 민간인학살사건 역시 그 당시를 직접 경험한 이들의 구술을 통해 기록으로 현재화되어 역사화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시각은 과거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자 한 19세기의 실증주의 역사학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을 것이다. 역사적 사실을 문헌사료, 기록에서 찾고 그 기록에서 역사적 사실을 찾을 수 있다는 랑케의 실증주의 역사학에 기초하면 인간의 기억을 토대로 구술한 구술기록은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사실로 역사적인 기록이 될 수 없었다.

20세기에 들어서서 전체적인 사회구조와 집단 속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사회사가 등장하게 된다. 사회사의 등장은 전통 역사학의 위기라고 볼 수 있었고 그들은 역사를 과거의 재현으로 보지 않고 역사가에 의해 선택되어진 ‘과거’가 역사가의 ‘해석’을 통해 ‘구성’된다고 보았

다. 더 이상 문헌자료가 역사의 객관성을 자동적으로 증명하게 해주는 열쇠가 아니었고 역사가 스스로가 증명해야만 되었다. 하지만 여기서도 역사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근본적인 정체성은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개념과 이론, 사회과학적 방법론으로 다가가 역사를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구성하였고 여기서 구술은 사회의 집단이나 노동자들, 빈민들, 민중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방법론적인 매개체로 자리 잡게 된다.

하지만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역사학은 사회과학적 방법론에 근거한 ‘거시사’를 해체하여 ‘서사적 역사’에 근거한 ‘미시사’를 추구¹⁴⁾하게 되었고, 오늘날 역사가 과거의 발견이 아니라 현재의 관점에서 만들어 진다는 점과 그에 따라 당대의 이데올로기, 지배 권력이 역사서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그리고 역사 자체가 계속적으로 새롭게 쓰여 진다는 점에서 역사에서의 기억이론이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에 구술은 역사적 사실을 뒷받침하던 부차적 방법론이 아닌 기억과 역사와의 관계 속에서 소외된 기억을 대변하는 대표적 매개체로 구술자체의 학문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구술연구는 인류학자, 사회학자, 역사학자와 같은 많은 구술사가들의 연구 속에서 구술사(Oral history)¹⁵⁾라는 체계적인 학문으로

14) 강성호,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책세상, 2003), 16쪽.

15) 구술사라는 용어는 미국의 구술사가 네빈스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으며 넓은 의미로 과거의 기억을 구술로 회상한 것을 역사연구로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일반적 의미로 구술기록을 이용한 역사연구로 정의내릴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구술기록은 개인의 체험과 기억에 대한 구술임으로 주관성과 서사성을 띄는데 그 성격에 따라 구전, 구술증언, 구술생애사로 구분할 수 있다. 구전은 여러 세대를 통해 입으로 전승된 구술기록을 뜻하고 구술증언은 개인이 체험한 사건에 대한 경험을 서술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구술생애사는 개인의 출생부터 현재까지의 삶을 서술하는 것을 말하고 이 안에 구술증언이 포함될 수 있다.

발전하게 되었고 현재 더 이상 구술이 가지는 주관성으로 구술기록이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구술이 가지는 주관성으로 구술기록을 특징짓고 그 주관성을 해석하는 질적 연구로 나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기억이론을 접목시켜 사회와의 연관성 속에서 구술을 연구하는 방법론은 문헌자료만을 객관적인 기록으로 인정하던 실증주의적 인식론에서 벗어나 구술기록을 통한 기억의 재현을 보여주는 질적 연구를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기억에서 구술사연구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더불어 구술기록을 단순히 수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수집방법에 의해서 구술기록을 생산해낼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구술기록을 수집하는 것에 치중하는 그래서 방대한 구술아카이브즈(Oral Archives)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전통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이런 구술기록의 수집은 수집절차 중 가장 큰 틀을 형성하는 현장조사와 인터뷰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먼저 올바른 현장조사와 구술기록의 생산을 위하여 구술기록의 수집 절차 과정 및 방법을 도출할 수 있는데 주제와 목적에 따라 방법과 과정이 다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집기획단계와 수집준비단계, 수집실행단계, 정리단계로 나뉜다.¹⁶⁾ 이는 스틸로우(Frederick J. Stielow)가 제시한 과정을 바탕으로 민간인학살사건에 관한 기록화에 걸맞게 권명숙이 새로운 수집 절차를 제안한 것이다.

먼저 수집기획단계는 구술기록 수집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법적근거와 연구의 가능성 및 큰 틀에서의 연구일정을 정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수집 준비단계는 선정된 연구 주제에 대한 문헌적 지식과 면담교육, 질문지 작성과 구술자 선정 등의 실제 구술수집에 앞서서 선행적으로 준비하고 검토해야 할 내용을 정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수집실행단계는 면담에 앞서서 유의해야 할 내용을 정리하여

16) 권명숙, 「구술기록의 수집 절차에 관한 연구: 민간인학살사건 도큐멘테이션을 중심으로」, 2007, 경북대학교대학원 기록학 석사학위논문, 37쪽 참조.

실제 면담을 하고 수집을 실행하는 단계이며 이렇게 생산된 구술기록과 여러 유형의 부차적인 기록물들을 유기적으로 도큐멘테이션 하는 단계가 마지막 정리단계로 볼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구술기록의 전후 맥락(Context)이 중요한데 이는 생산부터 기록화까지의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활동적이고 계속적으로 이용가치가 높은 구술아카이브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수집과정이 도출되어 현장조사와 수집 정리에 대한 대략적인 설계가 이루어진 후에는 인터뷰에 관한 방법론의 숙지도 필요하다.

현재 가장 많이 실행되고 있는 인터뷰의 방법 중 질적연구방법에 해당되는 서사적면담은 연구자의 연구 질문에 의해 구술자가 대답하는 형식이 아닌 구술자 자신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서사적으로 배치하여 구술하는 것으로 면담자와 구술자 서로간의 라포(Rapport)형성¹⁷⁾이 되고 난 뒤 이루어지면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 중 구술생애사연구 방법은 개인이 살아온 삶과 경험을 자유롭게 구술하는 것으로 이 안에는 증언으로써의 구술과 역사적 사실로써의 구술까지 존재하여 서사성과 역사성을 함께 가질 수 있는 질적연구방법론으로 볼 수 있다.¹⁸⁾

이렇게 질적인 방법으로 수집되고 절차에 따라 아카이빙 된 구술기록을 새롭게 역사화 하여 대항기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역사학의 ‘언어로의 전환’, 역사 서술의 ‘서사적 이론’과 비슷한 의미선 상에서 구술 텍스트를 분석하여 경험을 재해석하는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헤이든 화이트(Hayden White)는 역사 서술에서 언어의

17) 라포는 프랑스어로 ‘마음이 서로 통한다’는 뜻으로 상대방과의 신뢰감 형성을 지칭하는 말이다. 심리학, 의학, 교육 등 다방면에서 개념어로 쓰이고 있으며 구술사에서도 면담에서의 면담자와 구술자와의 신뢰감, 유대감 형성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18) 이와 관련해서는 윤택립, 함한희, 『새로운 역사쓰기를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아르케, 2006)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구성력과 역사의 문학성에 초점을 두어 역사는 역사가의 해석을 통해 텍스트의 형태로 인식된다고 주장했다. 즉 역사서술은 텍스트를 통해 전달되는 언어적 행위이고, 과거의 사실이라고 불리는 것들에 대해 역사가가 자신의 해석을 통해 제시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화이트가 역사서술에 있어서 언어를 통해 과거가 재구성된다고 주장했다면 도미니크 라카프라(Dominick LaCapra)는 화이트보다 한발 더 나아가 역사의 텍스트 읽기에 관심을 기울였고, 책 이면의 세계인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구조의 컨텍스트를 중요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와의 대화로서 텍스트 읽기를 강조했으며 컨텍스트의 진정한 이해로 언어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였다.¹⁹⁾

이러한 화이트와 라카프라의 관점을 구술기록의 텍스트분석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 과거 단편적 사건의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국한하여 구술텍스트를 활용했다면 화이트와 라카프라의 방법을 활용한 구술텍스트분석은 사실 확인뿐만 아니라 구술자 개인의 삶의 궤적 속에서 역사적 사실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해 알 수 있으며 이는 연구의 범위를 넓혀주고 다양한 각도에서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구술텍스트 자체가 언어이자 이야기이며 이 속에는 언어를 구성하는 구술자의 기억, 그리고 과거의 사실과 현재의 사실이 있고 이를 구술자의 현재적 관점과 지위, 환경, 사회라는 컨텍스트와 함께 분석하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구술사연구방법에서는 구술자의 서술 형식을 중심으로 구술자의 이야기 속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특징을 찾아내어 구술의 의미를 분석하는 톰슨의 서사분석(Narrative analysis)²⁰⁾과 역사적 사건에 대한

19) 조지형, 「언어로의 전환과 새로운 지성사」, 『오늘의 역사학』 (한겨레출판, 1998), 231~251쪽 참조.

20) Paul Thompson, *The Voice Of The Past:: Oral History*,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p. 265.

구술자들의 경험을 재구성하여 구술자들의 생애사 안에서 역사적 사건과 한 사회를 연결 지어 구술텍스트를 분석하는 재구성적 교차분석(reconstructive cross-analysis)²¹⁾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은 구술기록을 역사화하는 질적 연구의 대표적 접근법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텍스트분석과 더불어 구술기록 수집준비단계에서 수집한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헌자료들을 구술텍스트와 함께 배치하여 교차검증을 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텍스트분석과 교차검증의 과정을 함께 수행한다면 구술자가 구술한 기억에 대한 오류를 문헌자료가 바로잡아 주어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해주고, 더 나아가 구술자가 사실에 대해 왜 이렇게 기억하는지? 또 왜 이렇게 구술하는지? 로 이어져 결과적으로는 텍스트분석의 내용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 주게 된다.

이렇게 오늘날 기억에 기초한 구술을 역사화 하는 것은 기억에서의 구체적인 사건, 사실보다는 기억의 의도와 목적, 기억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현재에서 재구성하는 연구로 나아가고 있으며 구술기록의 텍스트분석이라는 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대항담론을 이끌어내어 지배기억과 대면하는 것으로 미래를 위한 올바른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다.

3. 민간인학살사건의 기록화

기억이론에서 잠시 다루었듯이 한국사회에서의 반공이데올로기는 공식적인 지배기억 중 대표적인 기억이다. 지배세력들은 끊임없이 반공을 강조하며 한국사회의 기억을 지배하였고, 이에 반대하는 이들은 모두 빨갱이가 되어 국가 앞에서 침묵해야만 했다. 한국전쟁전후시기

21) Paul Thompson, *Ibid.* p.265.

(1948-1953) 국가에 의한 민간인학살사건과 영덕군 창수면에서 일어난 민간인학살사건은 반공이 국시였던 국가 앞에서 입을 닫아야 할 기억들로 남았고, 지배기억 앞에서 말할 수 없는 대항기억을 찾는 일은 직접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구술증언을 기록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기록화(Documentation)의 사전적 정의는 활동이나 사건 등을 입증하기 위해 모아놓은 자료들을 지칭하거나, 활동이나 사건 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의 수집 또는 생산하는 모든 활동을 뜻하는 것으로 이러한 정의를 전제로 창수면 민간인학살사건의 기록화를 정의하자면 창수면의 민간인학살이라는 사건을 역사적으로 새롭게 입증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구술기록을 생산하여 유기적으로 모아놓는 활동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실제 구술기록의 수집과정과 방법이 이번 장에서 보여 지게 된다.

먼저 이 연구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2009년 피해자 현황조사 용역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진행²²⁾되었고 본 연구를 위한 수정과 보완을 거쳤다. 2009년도에 실시된 피해자 현황조사는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이에 각 지역의 조사보고서가 발간되었고, 그 중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 관련 2009년 피해자현황조사 연구용역사업 최종결과보고서: 경상북도 영덕군』 보고서는 영덕군 9개 면 전수조사를 통한 각 마을별 피해현황 및 피해자 수 집계를 중심으로 영덕군의 인문지리와 마을사 개관이 함께 정리되어 있다.²³⁾

22) 2005년 1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출범이후 진화위는 한국 사회의 역사적 미결과제들에 대한 진실규명과 화해를 시작하였고, 그에 대한 완결물들이 각종 보고서로 발행되었다. 먼저 2007년도부터 시작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의 연차보고서들이 2007, 2008, 2009년에 걸쳐 나왔다. 2007년도는 전국 9개 시·군을 대상으로, 2008년도는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어 한국전쟁전후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수를 파악하였고 각각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2007년 피해자현황조사 용역사업 최종결과보고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2008년 피해자현황조사 용역사업 최종결과보고서』로 발간되었다.

그 중 본 연구의 연구대상지로 선정된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蒼水面)은 경상북도 영덕군 서북쪽에 위치한 마을로 동으로는 병곡면, 서로는 영양군, 남으로는 영해면, 북으로는 울진군과 인접하고 있는 영덕의 북부 4개면²⁴⁾ 중 한 면이다. 총 면적은 152.28km²로 영덕군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총 13개법정리²⁵⁾로 구성되어 총 2,051(2007년 기준)명이 거주하고 영덕군 전체의 인구비율 중 5%를 차지한다.²⁶⁾

연구대상지로 선택한 이유는, 실제 현지 조사 경험 속에서 마을사적으로 민간인학살사건이 집중적으로 일어났던 한국전쟁전후시기 창수면에 유독 좌익이 많았고, 학살 피해가 많았다는 점에 초점을 둔 것이다.

1) 구술기록의 수집 설계

질 높은 구술기록을 생산해 내기 위한 수집 절차는 본 연구에 있어서 기반이 된 ‘2009년 피해자현황조사 연구용역사업’(이하 피해자현황조사)의 발주기관이었던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진화위)의 지침과 2장에 서 제시된 방법론적인 절차를 따랐다고 볼 수 있다.

23) 본 연구의 조사지인 창수면에 대한 보고서의 내용은 마을 안 피해현황 수치집계와 마을 별 개별사건 소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있는데, 보고서 안의 이러한 전개는 단순히 사건들을 나열하고 소개해주는 것으로 민간인 학살에 대한 흐름과 유형을 사건에만 국한시켜 자칫하면 사건의 파편화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었다. 그리고 창수면에서 수집한 구술기록을 질적인 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했기보다는 단순인용에 그쳤고 이는 사건의 실태를 파악하는 보고서 원래의 기본 임무에 충실한 한계라고 볼 수 있었다.

24) 영덕의 북부 4개면은 영해면, 창수면, 축산면, 병곡면이고 남부 5개면은 남정면, 달산면, 강구면, 지품면, 영덕읍이 있다.

25) 창수면의 법정리는 가산리, 갈천리, 미곡리, 백청리, 보림리, 삼계리, 수리, 신기리, 신리리, 오촌리, 인량리, 인천리, 창수리로 총 13개 리이다.

26) 경상북도, 『영덕군 통계연보: 제 48호』(경문사, 2008), 58~60쪽 참조.

먼저 이 연구는 진화위의 피해자현황조사를 통한 연구 성과 작업의 일부로 시작된 것이기에 실제 창수면의 피해자현황조사를 시행한 2009년 7월부터 9월까지의 현장조사는 기본적으로는 진화위의 지침으로 진행되었다. 진화위의 구술 수집 지침은 문헌조사, 현장조사, 구술 증언채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피해현황카드정리를 하여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한 유기적인 기록화를 이루는 것이 기본 목표였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스틸로우의 절차를 민간인학살사건 구술기록 수집에 적용하여 4가지 수집절차를 제시한 권명숙의 방법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수집과정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진화위의 지침이 경험적, 실제적이라면 이 절차는 구술기록 수집의 이론적 개념과 방법을 제시하는 틀로 볼 수 있었기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었다.

이 두 가지 기본 지침에 따라 피해자현황조사는 2009년 4월 28일부터 시작되어 그에 맞게 현지조사단이 구성²⁷⁾되었고 2009년 5월 6일 영덕군에서 조사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그 후 연구 목적을 분명히 하고 연구팀구성, 예산과 일정 등의 구체적 수집계획 설계, 잠재적 구술자를 확보하는 등의 기초적 수집기획을 마쳤다.

2009년 5월 16일에는 면담자교육을 실시하고 구술사연구방법을 숙지하는 자리인 피해자현황조사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영덕군에 대한 문헌조사실시와 구술증언질문지 작성, 개인별 피해현황카드 작성, 면담일지 작성과 같은 현장조사에 필요한 질문지 작성을 하는 수집준비단계를 거쳤고 이후 진화위에 신청된 잠재적 구술자들의 명단을 입수하여 그들과의 예비 접촉을 마쳐 실제 현장조사에 앞선 준비를 할 수 있었다.

27) 책임연구원으로 전현수 경북대학교 사학과 교수가, 공동연구원으로 김명진 경북대학교 문학박사, 연구원으로 김순규 연구원이 그리고 본 연구자가 속한 연구보조원 6명으로 구성되었다.

그 후 실제 영덕군 현장조사가 2009년 5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그 중 영덕군 창수면의 현장 조사는 7월 2일에서 9월 2일까지 총 7번 진행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를 위한 추가 현장조사가 2009년 11월과 4월에 걸쳐 4번 진행되었다. 총 11번에 걸친 현지조사를 통해 65명의 구술자를 만날 수 있었으며 그 중 8명의 구술자와 심층면담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 후 현장조사로 생산된 구술증언과 그 외의 기록물들을 유기적으로 기록화하기 위하여 녹취록해제와 면담일지작성, 그를 바탕으로 피해자현황카드를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렇게 생산된 기록들을 가지고 민간인학살사건을 역사화하기위해 폴더군을 형성하여 그 안에서 유기적으로 아카이빙을 하였다.

이상으로 전체적인 수집과정과 방법론은 위와 같고 실제 구술기록의 수집과 기록화에 있어서 중심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4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2) 구술기록의 실제 수집 과정

(1) 문헌조사

문헌조사과정은 실제 수집 과정 전 조사지에 대한 지역사적 배경, 특징, 민간인학살사건과 조사지의 연관관계에 대하여 사전 지식을 함양하는 것으로 이는 질문지 작성과 구술자와의 면담 시에 도움이 되는 배경을 만들어주었다.

먼저 영덕군의 인문 지리적 배경을 알 수 있고, 지역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알 수 있는 『영덕군지』와 각 면의 역사를 정리한 『남정면지』, 『영해면지』, 『창수면지』와 같은 향토사 자료와 지도, 사진 자료 등으로 영덕군과 창수면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선행적으로 정리

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인학살사건 발생의 시대배경이 되는 한국현대사에 대한 문헌연구가 이어졌다. 한국현대사관련 단행본을 통해 시대 배경과 사회적 분위기를 파악했고 『영덕의 독립운동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제시기서부터 해방까지의 영덕 지역의 현황과 사회 배경, 분위기, 면별 유명 인사들과 관계들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한국전쟁에서 전투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던 영덕이기에 한국전쟁전사를 비롯한 전투사 관련 단행본을 조사하여 전쟁의 이동 방향과 전쟁의 추이 속에서의 영덕 지역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주제인 민간인학살사건을 다룬 단행본과 연구서들, 자료 등을 통해 한국에서의 민간인학살의 배경과 시기, 유형에 대하여 숙지하고 영덕에서의 민간인학살사건의 문헌자료를 연구하였다. 실제로 한국의 민간인학살사건과 관련해서 현재 지역별로 많은 연구성과와 단행본이 발간되었지만 영덕에서의 민간인학살사건을 다룬 문헌은 많이 부족하였다. 군지, 면지와 같은 향토사 자료에서 민간인학살사건이 언급이 되지만 깊게 다루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고 진화위에 진실규명이 이루어진 『영덕지품면민간인희생사건 진실규명결정서』와 『경북 영덕 국민보도연맹사건 진실규명결정서』 보고서 2편, 『제4대국회양민학살진상조사보고서』, 경상북도의회에서 발간한 『양민학살진상규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는 단편적으로 발생한 사건들과 피해자 수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이와 함께 그 당시 영덕지역과 창수면의 사실적인 시대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신문자료를 조사하기도 하였는데 『조선일보』, 『동아일보』, 『영남일보』에서만 확인이 되었다. 신문자료에서는 주로 단신으로 실린 내용이었지만 기사만큼 시대 상황을 정확히 알려주는 정보는 없듯이 기사는 많은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영덕지역의 좌익사범 관련 요시찰인을 정리한 명부인 『요

시찰인명부』와 『좌익수형기미만기석방자명부』, 순직한 경찰관들의 순직사유와 인적사항을 정리한 『순직경찰관대장』 등의 경찰청 자료를 통해 좌익사범, 사상범들에 대한 면별 관계도와 수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는 그 당시 국가가 어떠한 판단기준 아래 국민을 요시찰인으로 분류하였는지 유추해낼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있었다.

위와 같이 조사한 문헌자료는 영덕에서 그리고 창수면에서의 민간 인학살사건을 사실적으로 규명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자료들은 주로 발간기관이나 저자들의 성격에 영향을 받아 기술이 되어 있었고 사건들의 인과관계나 과정에 대해서는 파편적으로 기술되어 있었다. 더욱이 민간인학살사건이라는 것이 어떠한 사건, 사실 하나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문헌자료의 부족함은 사건을 구체적으로 재현할 수 없는 문제점으로 볼 수 있었다.

바로 이런 문제점에서 구술증언의 중요성이 발견되었다. 문헌자료의 부족함은 관련 사건의 체험자, 생존자, 유족들의 구술증언으로 보완될 수 있었고 구술증언을 통해서 사건의 재구성과 인과관계의 복원이 가능하고 나아가 새로운 사실을 밝혀낼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을 유추해낼 수 있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문헌자료는 구술기록의 객관성을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신뢰성 높은 구술기록을 생산할 수 있는 윤활유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1〉 문헌자료 목록

자료유형	자료명
신문자료	『매일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영남일보』
경찰청자료	『요시찰인명부』, 『순직경찰관대장』, 『좌익수형기미만기석방자명부』
국방부자료	『韓國戰爭史. 1』, 『안강·포항전투』, 『대비정규전사』
향토사자료	『남정면지』, 『영덕군지』, 『영해유록』, 『창수면지』, 『郡勢一斑』
보고서	『경북 영덕 국민보도연맹사건 진실규명결정서』 『국민보도연맹 사건 발굴·수집 자료』 『양민학살진상규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영덕지품면민간인희생사건 진실규명결정서』 『제4대국회양민학살진상조사보고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피해자현황조사용역사업 결과보고서 2007』
단행본자료 ²⁸⁾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현대사』, 『영덕의 독립운동사』, 『영덕의 의병사와 의병장 신돌석』, 『일제하 40년사』, 『전쟁과 기억』, 『전쟁과 사회』, 『전쟁과 사람들』, 『전쟁과 재현』, 『한국전쟁과 집단학살』, 『한국전쟁의 기원』, 『해방정국 청년운동사』, 『해방 후 양민학살사』

(2) 질문지작성

현장조사에 앞선 문헌자료 조사로 민간인학살사건의 흐름과 지역사를 이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조사에 필요한 질문지들을 작성할 수 가 있었다.

먼저 면담에 있어서 지침서가 되고, 면담의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는 구술증언조사지가 준비되어야 했고, 구술자와 피해자들, 사건들에 대한 후대에도 이용 가능한 메타데이터가 되는 개인별피해현황카드, 면

28) 단행본자료는 창수면과 민간인학살사건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헌과, 그 외 사건흐름과 사전조사 지식 함양에 중요했던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하였고 그 외의 참고문헌들은 생략하였다.

담자가 면담 후 작성할 수 있는 일일활동보고서(면담일지)등이 준비되어야 했다. 이러한 질문지들은 구술의 기록화에 있어서 자료들의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구술기록의 질을 더 높여주고 기록의 활동성을 보여주기 위해 주제의식과 연구목적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① 구술증언 질문지

먼저 문헌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실제 구술자와 면담에 있어서 면담자에게 가이드 역할을 수행하는 구술증언 질문지(이하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실제 면담에 있어서 언제어디에서나 면담자가 유도한 방향으로 구술이 흘러가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가 있고 이때마다 질문지의 내용을 수시로 참고하여 구술 진행의 흐름과 방향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질문지는 사건의 경험자, 목격자, 전문가, 유족을 대상으로 면담이 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여 그들을 대상으로 작성할 수 있었다.

조사에서 작성된 질문지는 진화위에서 명시한 지침을 본 연구에 맞게 어느 정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진화위 지침에서는 사건과 피해자 수 파악에 집중된 질문이 주를 이루었고 본 연구에서는 그것에 생애사관련 질문을 보충하여 개인의 생애 흐름 안에서 일어난 사건과 사실들이 어떤 의미와 영향을 끼쳤는지도 함께 알아보려고 했다.

아래의 표는 실제 질문지 조사양식이다. 먼저 열린 질문으로 구술자의 긴장을 풀게 해주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끌기 위해 구술자 개인과 가족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에 대하여 질문하는 단계를 넣었다. 이는 처음부터 꺼내기 힘든 내용인 민간인학살사건을 떠나 구술자, 가족에 대해 서술하고 구술자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스스로 주제를 선택해 자유롭게 서사적으로 구술을 할 수 있게끔 구술자의 마음을 열게 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어느 정도 구술자가 구술에 확신을 가지고 서술하게 된다면 연구주

제인 민간인학살사건관련 내용을 구술자가 말한 생애흐름에 따라 질문 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질문은 구술자의 서사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또 연구주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대흐름 순서인 일제시기, 해방정국, 전쟁 전, 전쟁 후, 수복과 점령 과정이라는 연대기별로 질문지를 구성했다.

특히 민간인학살사건이 특정 사건 하나로 특징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제시기부터 있어왔던 잠재적인 갈등들로 거슬러 올라가 그곳에서 근본적인 요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에 일제시기의 지주-소작관계, 마을 안 권력 구도와 이념적 성향과 분위기, 마을 안 인물들의 관계와 마을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을 순차적으로 배치하였다. 그리고 민간인학살사건의 직접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해방 후 좌우익 다툼에 대한 내용을 배치하고 전쟁 직전의 마을 분위기와 전체적 사건들에 대한 질문도 함께 배치하였다.

다음으로는 전쟁 발발 후 전국적으로 자행된 국민보도연맹²⁹⁾ 학살의 실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쟁직후의 마을에 대한 질문을 배치하였고, 전쟁 시기에 일어난 학살인 인민군점령시의 인민군에 의한 학살과 마을 내 좌익들에 대한 학살, 국군의 수복 후에 이루어진 부역혐의자 학살 등이 어떠한 배경에 의해 일어났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전쟁 시기의 마을 분위기에 대한 질문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는 마을 내 분열의 요인들과 주축들인 지방 좌익과 우익들의 활동에 대한 내용을 질문지에 담았고 이들에 대해 서술하는 구술자의 서술방식으로 구술자의 성향을 유추하고, 구술자의 생각을 알아보고싶어 하였다.

이렇게 사건의 흐름과 마을에 대한 질문지 작성을 마친 후 다음으로 구술자가 구술한 배경과 흐름 사건들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질문

29) 이 연구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국민보도연맹과 보도연맹을 혼용해서 사용하기로 한다.

을 하여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 일시, 가해자 주체와 피해자 주체, 피해이유와 사건 발생 내용을 알아보는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이는 사건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묻는 질문이다. 이 구체적 질문지를 통해 면담을 시작하여 생산된 구술기록들을 구술자가 사전에 구술한 시대배경이나 흐름을 함께 분석하여 새로운 사건과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 것들이다. 질문지는 문헌조사에서 민간인학살이 크게 군경토벌과 국민보도연맹원 학살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할 수 있었다. 하여 군경토벌의 피해자들과 가해자들, 토벌기간 중에 일어난 집단학살과, 산발적인 학살 일자와 발생 과정, 전쟁 발발 후 국민보도연맹원 학살 시기와 국민보도연맹원들의 가입 동기, 가해자 소속에 대해서 질문하는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구술자가 말한 특정 사건에 대해 중요하다 싶은 부분은 면담자가 적극적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군경토벌과정의 집단학살 사건이나 국민보도연맹의 집단학살에 관한 내용은 민간인학살의 주요 사건이 됨으로 이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었다.

그 후로는 정전 후 마을 상황과 분위기, 국가가 시행한 조치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질문지를 작성 할 수 있으며 그 후로 유족들의 피해 사항과 연좌제 여부, 사회에서의 부당함을 당한 피해에 대한 질문지를 만들 수 있었다. 이는 전쟁과 학살이라는 경험이 개인과 마을이라는 한 집단에 어떤 영향과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또 어떻게 기억이 전승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다. 여기서 특별한 점은 이 질문들은 사건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보다는 구술자 개개인의 주관적 생각과 가치관에 기인한 구술을 유도해낸다는 사실이다. 이는 민간인학살사건에 대한 구술자 각각의 생각과 기억의 내용을 서로 비교 연구하여 기록과 기억에 대한 연구에 중요한 가치를 지닐 일차적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되었다.

<표 2> 구술증언 질문지 양식³⁰⁾

조사지역	도 군 면 리 마을					
면담자 성명		생년 월일		피해자 성명		당시 연령
피해자 와의 관계	피해자()의 ()			피해유형	예) 좌익에 의한 희생사건	
면담일시				면담시간	: ~ :	
면담장소				면담자	성명: 연락처:	
<p>○ 열린 질문 (구술자 개인에 대한 질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관과 가문에 대하여 2. 부모님에 대하여(학력, 직업, 성품 등) 3. 형제자매에 대하여(학력, 직업, 성품, 결혼 등) 4. 집안분위기와 가정형편 5. 살아온 이야기(유년기~현재까지) <p>○ 열린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과 사건의 흐름 파악(마을에 대한 질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을의 특징(씨족구성, 반상관계, 지주소작관계 등) 2. 식민지시기 마을의 분위기(지주와 소작인 관계, 야학, 징용 등) 3. 해방직후 마을 분위기(인민위원회 수립과정, 좌우의 세력정도, 친일파들의 행보) 4. 전쟁직전 마을 분위기와 사건들 5. 전쟁직후의 지역상황(경찰후퇴, 지방좌익출현, 인민군 진주 등) 6. 인민군 점령 시 인민군과 지방좌익의 활동상황(우익 처벌방식, 의용군 모집, 토지분배 등) 7. 국군수복 이후 마을 분위기(주민에 대한 태도, 부역자 처벌방식 등) 8. 마을 내 남로당 등 좌익의 활동내용 9. 마을 내 경찰·우익단체의 활동내용 <p>○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과 현재의 생각(희생 사건과 관련된 질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쟁 전 학살발생여부 2. 국민보도연맹의 결성내용 3. 사건 당시 마을의 전반적인 분위기(좌우의 대립정도, 빨치산 활동 정도, 군경의 치안유지 상태 정도) 4. 희생 사건의 구체적인 발생 시기(1948년 10월 20일(양력)오후8시경) 5. 국민보도연맹원으로 가입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 						

30) 전현수 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 관련 2009년 피해자현황조사 연구용역사업 구술증언자료집: 경상북도 영덕군』 (에드가, 2009) 참조. 이 질문지는 진화위에서 마련된 질문지에 필자가 수정·보완한 것이다. 진화위의 질문지는 사건위주, 사실위주의 문답식 형식이었다면 필자는 구술자의 생애흐름 속에서 학살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열린질문으로 구술자에 대해서 파악한 후에 점차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접근하는 질문지를 만들었다.

6. 연행 혹은 구금당시의 상황(예비검속 상황)
7. 희생 당시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직업(이장, 농업 등)
8. 피해이유 및 희생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가해자, 희생 장소, 학살인원)
9. 직접적인 가해 당사자(경찰, 특무대, 군인, 인민군, 지방좌익, 빨치산 등)
10. 사건 관련자에 대한 정보
11. 사건 이후 유족들의 피해(연좌제 등)
12. 구술자가 생각하는 희생사건의 해결방안

② 개인별피해현황카드

개인별피해현황카드는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진화위에서 개인별피해현황카드정리를 통해 사건의 피해자현황을 기록화한 뒤 민간인학살 사건에 대한 유기적인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후대에도 이용될 수 있는 사건의 메타데이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이번 피해자현황조사에서도 역시 개인별피해현황카드의 지침을 통해 피해자들의 정보와 구술자 정보를 명시하고 사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여 사건의 메타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먼저 구술자들의 이름, 현재 나이, 성별, 구술한 피해자와의 관계와 현재 주소를 명시하고, 구술자가 구술한 피해자정보를 명시하였다. 피해자의 이름과 성별, 피해가 있었던 사건 당시의 나이, 직업과 주소, 결혼 유무를 명시하였다. 이는 후대에도 피해자확인을 위한 결정적 증거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화 된다면 이 요소들이 가장 빠른 접근점(Access Points)으로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 후 사건내용이라는 곳에 피해가 있었던 사건의 전후 내용과 발생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전히 군단위에서는 음력을 많이 쓰는 것을 감안하여 음력과 양력으로 나누어 년, 월, 일을 구체적으로 기입하는 란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피해 장소 역시 구체적으로 기입하는 란을 마련하였고 피해이유를 적을 수 있도록 하였다. 피해이유는 피해자가 학살을 당하게 된 직접적 요인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진 란이다.

그리고 기입하는 것이 피해형태인데 14가지로 나뉜 이 피해형태는 민간인학살사건의 대표적인 피해형태들을 정리하여 명시한 것으로 피해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학살을 당하였는지 알 수 있도록 만든 란이다. 피해유형도 역시 14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역시 민간인학살사건의 대표적인 피해유형들로부터 정리된 사항으로 피해유형 하나로 발생한 사건의 내용을 계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해유형의 민간인을 위와 같은 피해형태로 학살한 가해자들의 소속을 밝혀주는 란을 뒤이어 만들었는데 가해자 소속 역시 민간인학살의 대표적 학살주체들을 9개로 정리하여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사건에 대한 일차적인 사항인 구체적 사항과 형태, 유형, 일시, 장소, 이유에 대해 적시를 마치게 된 후 그 뒤로 추가적인 사항에 대한 정보도 기입할 필요성을 찾게 되었다. 이는 사건이 일어난 후에 대한 피해 상황과 관련자 사항에 대해서 정보를 기입하는 것으로 후에 있을 진실규명과 피해자보상에 대한 실제적 수혜자들에 대한 정보라고 볼 수 있다. 하여 피해자와 관련된 관련자 정보란을 만들어 기입할 수 있게 하였고 여기에는 주로 자식, 처, 부모 등 가족사항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도록 하였다. 또 실제적으로 진화위에 피해신청이 있었는지의 유무를 알아보는 란을 마련하였고, 사건 후 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불이익 여부인 연좌제피해를 알아보는 란도 함께 마련했다. 이에 따라 피해를 당한 가족의 구체적인 피해 사항, 생활사항을 기입하는 란을 따로 생성하였다.

<표 3> 개인별피해현황카드³¹⁾

구술자정보	이름		나이	년 월 일
	성별	①남 ②여	피해자와 관계	목격자/전연자/피해자 ()의()
	주소		연락처	* 휴대전화 또는 집 전화번호
피해자정보	이름		나이	세
	성별	①남 ②여	결혼	①미혼 ②기혼
	직업	①농업 ②주부 ③학생 ④군인 ⑤경찰 ⑥공무원 ⑦상업 ⑧공업 ⑨무직 ⑩기타()		
	주소		연락처	* 휴대전화 또는 집 전화번호
	연락처	* 휴대전화 또는 집 전화번호		
사건내용	구체적으로 기입(별지사용 가능)			
피해일시	①음력 ②양력 ()년 ()월 ()일			
피해장소	()도()군()면()리()			
피해이유				
피해형태	①총살 ②구타사망 ③참수 ④척살 ⑤수장 ⑥폭격사망 ⑦기총소사 ⑧생매장 ⑨고문치사 ⑩행방불명 ⑪성폭행 ⑫생존자의 경우 사건당시 신체적·심리적·물질적 피해여부 ⑬기타()			
피해유형	①보도연맹 ②부역혐의 ③군경토벌 ④형무소 ⑤미군사건 ⑥여순사건 ⑦대구10·1사건 ⑧국민방위군 ⑨인민군 ⑩지방좌익 ⑪빨치산 ⑫개별사건 ⑬월북 ⑭기타사건			
가해자	※ 구체적인 가해자의 소속 : ①군인 ②경찰 ③군·경합동 ④CIC(특무대) ⑤지방우익 ⑥인민군 ⑦지방좌익 ⑧빨치산 ⑨기타()			
관련자정보	인적사항, 생존여부 기재			
피해신청 여부	①접수 ②미접수			
연좌제 피해 여부	①본인 ②자녀 ③친인척 ④연좌제 해당 없음			
피해 이후 가족들의 생활사항	구체적으로 기입(별지사용 가능) 타 지역으로의 피신(이주), 가정갈등 내지 파탄, 경제적 파산 등 피해 이후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들이 겪은 생활사적 변동사항을 정리			
관련자료 여부	※ 자료명 : ①문헌자료 ②사건자료 ③영상자료 ④기타자료			
조사자	소속 : 성명 : 연락처 :			

31) 전현수 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 관련 2009년 피해자현황조사 연구용 역사업 최종결과보고서: 경상북도 영덕군』(에드가, 2009), 69쪽.

③ 현장 조사

모든 양식과 체계가 갖추어진 후 잠재적 구술자 명단에서 주요 구술자³²⁾를 선정하여 현장조사에 임했다. 구술자는 민간인학살사건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경험자들이 1순위가 되었고 목격자, 유족, 전문가 순으로 선정이 가능했다. 구술자 선정은 이미 진화위에 접수한 명단을 바탕으로 구술자와의 접촉이 가능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다른 주요 구술자들을 소개 받을 수도 있었다. 창수면의 경우 진화위의 명단에서 구술자를 찾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지만 창수면 마을 이장과 유지들을 통해 주요 구술자들과의 접촉이 가능할 수 있었다. 아래는 총 65명의 구술자 중 심층면담을 수행한 8명의 주요 구술자 명단이다.

<표 4> 주요 구술자 명단

구술자	나이(만)	성별	거주지	직업
박노○	77세	남	영덕군 창수면 가산리	퇴직교육자/농업
신병○	78세	남	영덕군 창수면 미곡리	농업
박정○	78세	남	영덕군 창수면 가산리	농업
권달○	83세	남	대구시 대현동 (당시 영덕군 창수면 보림리 거주)	요양 중
신상○	87세	남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	농업
박진○	80세	남	영덕군 창수면 신리리	농업
백순○	73세	남	영덕군 창수면 가산리	농업
이진○	75세	남	영덕군 창수면 삼계리	농업

면담 전에 구술자의 체험과 이야기를 진정으로 경청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가졌다. 사실 민간인학살사건이라는 것이 쉽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가벼운 주제는 아니다. 구술자는 사건의 체험과 전언을 구술하는 과정에서 그때의 감정과 고통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감정을 면

32) 이 최종 구술자 명단은 창수면의 주요구술자명단이기도 하다. 창수면 전수조사로 인해 만난 57명의 구술자들은 이 명단에서는 제외된다.

담자에게 드러내는 것은 구술자로서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여 실제 면담에 있어서 “어떻게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구술자와의 신뢰감 형성이 비례하게 될 것이라는 구술사 연구의 기본 지침을 계속하여 숙지하였고 최대한 “잘 듣기”라는 지침을 명심하였다.

면담 환경의 조성은 구술자에게 심리적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했다. 사전 약속 후 실제 구술자의 집을 찾아 갔을 때 보통 없거나 마을 회관에 계시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마을 회관의 경우도 역시나 구술자에게 집 같은 공간이기에 거부감은 없었으며 편안한 상태에서 녹취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외에 논, 밭, 정자 같은 곳에서도 면담을 하였는데 모두 구술자들이 늘 다니는 곳이므로 편안한 상태에서 면담이 가능하였다.

그리고 녹취기는 구술자가 거부 반응을 보일 수 있기에 너무 가까운 곳에 두는 것보다는 구술자 곁에 자연스럽게 두고 녹취를 시작하였고 메모용지와 펜을 챙겨 구술자의 말을 녹취와 동시에 메모하기 위해 준비를 미리 하였다.

구술 녹취를 시작하면서 먼저 구술자에게 구두로 구술 자료의 연구 목적과 연구 활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녹취 이후 구술자에게 동의서를 작성하여 자료의 활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 과정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조사에 임했을 때 구술자들이 어떤 문서를 남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여 녹취 전 녹취의 목적과 활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한 후 구술자의 동의가 있게 되면 녹취를 시작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면담은 위에서 작성한 질문지의 형식에 따라서 진행하였다. 열린 질문으로 구술자의 긴장을 푼 후 그에 대한 보충 질문 그리고 심층 질문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면담에서 질문지에 따라 이끌어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열린 질문에서 입을 닫아버리는 구

술자, 감정에 복받쳐 우는 구술자, 귀가 먹어 질문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구술자 등 다양한 구술자들과의 면담이 진행되었다. 사실 여러 가지 돌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면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매번 답을 얻을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과 행동, 감정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최선의 답이라 생각하고 면담을 진행해 나갔다. 특히나 주제 자체가 무거운 주제이다 보니 그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울 때가 많았다. 이때는 구술자 스스로 말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잘 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고 이 과정에서 신뢰감이 형성되기도 했다. 그리고 녹취와 함께 면담메모를 하였다. 녹취과정에서의 메모는 녹취록 작성 때에 면담상황을 떠올릴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이 되며 개인별피해현황카드의 정리에 있어서는 면담 메모가 카드의 일차 자료가 되었다. 실제 녹취록을 작성할 때 영덕의 방언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였는데 그럴 때 마다 면담메모는 많은 도움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녹취록의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또 이 신뢰성은 녹취록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여러 자료들의 신뢰도도 함께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했다.

면담의 세부적 시간 배분은 정하지 않고 면담을 진행해 나갔다. 개인의 경험에 대해 구술하는 것이 특별히 시간의 배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배분을 한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길게는 2~3시간, 짧게는 20~30분으로 진행되었다.

면담 후에는 구술자의 동의하에 구술자의 구술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특별히 사진을 거부하는 구술자는 없었지만 카메라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이는 구술자도 간혹 있었다. 이럴 때는 재차 권하지 않고 카메라를 놓으며 마지막까지 신뢰감을 깨지 않으려 노력 했다. 사진 촬영 후에는 실제 사건 현장을 방문하여 사진을 촬영하였다. 구술자와

함께 방문하여 사건현장과 구술자의 손짓을 함께 앵글에 담는 방식으로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런 경우에는 구술자들이 사진을 찍는 것에 대한 거부반응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장 방문 역시 녹취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2차 녹취도 필요하며, 메모 또한 필수였다.

아쉽게도 조사 과정에서 경험자, 유족들과 같은 주요 구술자들에게서 사건과 관련된 증거물품이나 자료를 많이 구하지 못하였다. 찾은 자료로는 죽은 아버지의 기일이 기록되어 있는 족보 한 점이였다. 이 족보는 피해 당시의 날짜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으로써 증거가치가 높은 자료였다.

(4) 기록화과정

면담 후 생산된 민간인학살 구술증언과 자료들을 빠른 시간 내에 체계적으로 기록화 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장조사의 기억이 남아있을 때 기록화하면 구술기록들의 전후 맥락을 유기적이고 짜임새 있게 구성할 수 있게 된다.

① 면담 메모 정리와 일지 작성

면담 후 가장 먼저 면담 메모 정리와 일지를 작성하였다. 이는 면담에 대한 기억이 많이 남아있을 때 바로바로 메모와 일지를 정리하면 질 높고 정확한 구술 기록을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면담 메모는 면담을 하면서 메모한 내용을 일지안의 <면담내용 및 면담 분위기란>에 정리하여 기입을 하였다. 아래의 표는 실제 면담 일지 작성 표다.

먼저 조사일시와 지역, 면담 수행자와 활동내용을 작성했다. 그리고 하루에 시간별로 만난 구술자들을 기입하고 면담의 내용과 분위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적었다. 이러한 면담메모는 개인별피해현황카드의 작성 시 많은 도움이 되고 또 훗날 현장조사에 대한 기록을 찾을 시에 일자별로 정리된 일일활동보고서만 보아도 그날 이루어진 조사를 한 눈에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실제 조사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어 그것을 따라 기억을 상기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표 5〉 면담일지(일일활동보고서)

일시	2009년 7 월 04 일 15:00 ~ 16:20	
지역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가산1리	
면담자	○○○	
활동 내용	창수면 민간인학살사건 마을 조사 가산 1 리 거주 구술자 자택에서 개인별 면담	
면담 대상자	성명	백○○(73세 · 38년생)
	주소	경북 영덕군 창수면 가산 1 리
	성명	
	주소	
면담 내용 및 면담 분위기	성명	
	주소	
면담 내용 및 면담 분위기	<p>면담은 구술자 자택에서 이루어졌다. 구술자는 6.25 발발 전 군경토벌 기간 때의 마을 분위기와 마을 상황 그리고 6.25 발발 후 인민군 치하에서의 마을 상황과 분위기에 대해서 말하였다. 그리고 군경토벌 시기 군경에 의해 마을 주민이 희생되는 장면을 실제 목격하기도 하였다. 증언을 하면서 그때의 상황을 확실히 기억하였다. 그 상황을 회상하면서 몸서리를 치기도 했다.</p> <p>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부드러웠고 우호적이었다. 최대한 많은 증언을 하기위해 구술자가 기억을 더듬는 것을 볼 수 있었다.</p>	
자료수집 내용	자료 수집 내용은 없음	
관련자 연락처	054)○○○-○○○○	
차량·경비 지출 내역		
특이사항	구술자의 자택 옆이 고속도로 지역이라 차 소음이 상당했음.	

② 개인별피해현황카드 정리

면담 일지를 작성 한 후에는 개인별피해현황카드를 정리 할 수 있다. 물론 개인별피해현황카드는 면담 메모를 바탕으로 정리할 수 있고 아래의 표는 개인별피해현황카드를 실제 정리한 예이다.

먼저 구술자에 대한 정보와 피해자의 기본 정보를 기입하고 사건내용에는 구술자가 구술한 내용을 정리하여 기입할 수 있다. 개인별피해현황카드의 양식은 기본적으로 통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체크 표시, 진하게 역시 통일된 서식아래 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아래와 같은 개인별피해현황카드를 최대한 상세하게 기입하여 작성하면 훗날에도 끊임없이 이용 가능한 기록적, 역사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고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Description)을 보여주어 데이터베이스화된 공간에서 높은 접근성(Accessibility)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표 6〉 개인별피해현황카드 정리³³⁾

면담자정보	이 름	백○○	나 이	72세 1938년 12월 30 일	
	성 별	①남 ②여	피해자와 관계	목격자/전인자/피해자 (권○○)의(마을 주민)	
	주 소	영덕군 창수면 가산1리 ○○○번지		연락 처	○○○-○○○○
피해자정보	이 름	권○○	나 이	30대	
	성 별	①남 ②여	결 혼	①미혼, ②기혼	
	직 업	①농업 ②주부 ③학생 ④군인 ⑤경찰 ⑥공무원 ⑦상업 ⑧공업 ⑨무직 ⑩기타()			
	주 소	영덕군 창수면 가산1리		연락 처	○○○-○○○○
사건내용	백○○은 일본에서 국민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하여 본 사건을 창수국민학교 4학년 때인 13살에 목격하였다. 권○○은 마을 동장(이장)일을 하면서 농사를 지었다. 좌익활동을 해서 산에 있다가 6.25직전에 경찰에게 체포당하려고 하자 경찰을 메치고 달아났다. 그러나 마을 동산 밑에서 대꽃이에 찢려서 부상을 심하게 입어 집에 있게 되었다. 며칠 후에 50사단 군인이 와서 마을 한가운데서 총살하였다. 이상은 백○○의 구술내용이다. 권○○은 안동 권씨 부정공파(副正公派) 영해입향조(寧海入鄕祖)				

	중에서 셋째 아들네의 종손이기도 하다.
피해일시	①음력 ②양력 (1950)년 ()월 ()일
피해장소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가산 1)리 ()
피해이유	좌익에 연루되어 군경토벌 시기 총살
피해형태	①총살 ②구타사망 ③참수 ④척살 ⑤수장 ⑥폭격사망 ⑦기총소사 ⑧생매장 ⑨고문치사 ⑩행방불명 ⑪성폭행 ⑫생존자의 경우 사건당시 신체적·심리적·물적 피해여부 ⑬기타()
피해유형	①보도연맹 ②부역혐의 ③군경토벌 ④형무소 ⑤미군사건 ⑥여순사건 ⑦대구10·1사건 ⑧국민방위군 ⑨인민군 ⑩지방좌익 ⑪빨치산 ⑫개별사건 ⑬월북 ⑭기타사건
가해자	※ 구체적인 가해자의 소속 : ①군인 ②경찰 ③군·경찰동 ④CIC(특무대) ⑤지방우익 ⑥인민군 ⑦지방좌익 ⑧빨치산 ⑨기타()
관련자정보	피해자는 아들 2명과 딸1명이 있다. 큰아들 권○은 서울에 거주함
피해신청 여부	①접수 ②미접수
연좌제 피해 여부	①본인 ②자녀 ③친인척 ④연좌제 해당 없음
피해 이후 가족들의 생활사항	피해자의 큰 아들 권○이 성균관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엘리트임에도 불구하고 연좌제로 인해 취직이 어려웠다고 함. 그 후 서독 광부로도 파견을 갔는데 그때 사상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문중에서 손을 써줬다고 함.
관련자료 여부	※ 자료명 : ①문헌자료 ②사진자료 ③영상자료 ④기타자료
조사자	소속 : 경북대학교 성명 : ○○○ 연락처 :○○○-○○○○-○○○○

③ 녹취록 작성

이렇게 정리된 파일을 가지고 녹취록을 작성할 수 있었다. 녹취록은 될 수 있으며 빠른 시간 안에 그리고 직접 면담에 참여한 면담자가 작성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녹취록을 만들어 낼 수 있으므로 실제 조사 이후 2일을 넘기지 않은 시간 안에서 작성하였다. 1시간의 녹취파일은

33) 전현수 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 관련 2009년 피해자현황조사 연구용 역사업 개인별피해현황카드: 경상북도 영덕군』(애드가, 2009), 932쪽.

녹취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5~6시간이 필요한데 이번 조사의 녹취록들은 대체적으로 방언이 많고 나이 많은 구술자들의 구술로 인해 녹취록을 만들 때 5~6시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였다.

먼저 조사 지역과 구술자 성명, 구술자의 간단한 신상 명세와 파일 유형, 파일 크기에 대해서 명시하였고 면담내용과 면담일시, 시간, 장소, 면담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기입하였다.

내용은 녹취기호에 따라서 작성이 되었고, 구술자가 구술한 내용을 변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영덕 지역의 방언을 있는 그대로 기입하였고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단어들이나 내용들은 괄호를 두어 표준어로 따로 알아보기 쉽게 표기해주었다. 녹취록 작성 후에는 검독 작업을 거쳤고 최종적으로 완성된 녹취록을 녹취파일, 사진 자료와 같은 이름으로 기입하고 저장하였다.

아래의 표는 녹취록 작성의 예이다. 구술자는 한국전쟁전후시기에 발생한 주요사건들과 마을 상황에 대해서 구술하였다. 구술자는 구술을 하며 자신의 이념적 성향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그와 동시에 자신의 이념과 반하는 이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내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7〉 녹취록

조사 주제 및 조사 지역	민간인학살피해사건 조사: 영덕군 강구면 하저리						
구술자 성명	남○○	생년월일	1927년 82세	녹취시간	1시간	파일 유형	wave파일
면담 내용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피해사건에 대한 영덕군내, 창수면 마을 상황 설명						
면담일시	2009.11.21			면담시간	14:20 ~ 18:00		
면담장소	구술자 자택			면담자	○○○		
구술자: 어? 빨갱이 빨갱이라고 빨갱이들 저 아군들이가 저 여 영해서 폭격되뿌렸거든 기습되뿌렸거든? 군인들이 분해가지고 온게 뭐 경찰들이가(동네 주민이 음식 가져다 옴)그래가지고 거기서 분해가지고 분풀이한다고 (필자 강조) 경찰서 가 다놓은 사람들 좌 내가지고 마카(전부) 눈매가 마카 세아 놓고 막 총싸가다 죽 았은 구디 파놓고, (목소리 작아지며) 여 마이 죽었다 첨에 여 이 동네도 마이 마이 뗏이 죽었지 여 너이 그래가 그 파내가지고 집에 마카 파 넣고 이랬지 이 았한 목숨들 그거 뭐 그 빨갱이 뭐야노 (필자 강조)							

(중략)

구술자: 그 저 경찰이라고 그 저 빨개인들이 그랬잖아 총 없이 사람 두드러 패가지고 돌로 눌러가지고 여 어((목소리 작아지며 쉬쉬하는 것 같은 느낌))금 진 의판데 집이 있다고 도둑님 골이라고 그이 그르케 야이 그때 세월 말하면 말 못하지

면담자: 예 힘드셨죠

구술자: 힘들고 말고, 그때는 참알로 그 참 무지한 사람들이지 아무것도 모르고 켜저도 내나(똑같이)) 똑똑은 놈들 같으면 그렇게 해도 괜찮지 똑똑으면 차라리 그해 피해 가쁘고 피해가지고 못 피해가지고 사는 사람 안 있나? 그러지 만은 그 이하 개코도 배우지도 못하는 즈그 내나 말만 듣고 그러니 얽한 목숨들 많이 갔지 많이 죽었지: 이 동네는 아니다 이쪽 동네 금진 동네는 그 집안사람들 와 내 이름은 여 내 여 우리집에 오면은 연락된다고 이름까지 적어왔다 내 한번 지서 까지 끌려갔자나 내 가이 지서 저가이 3일 내 죄 없으니 내도가 말이야 큰소리하고 내 3일 만에 와 뿌렸지

면담자: 왜 지서 가신 건데요

구술자: 거 이름이 적혔어 우리 여 전에 산에 있었는데 여겨 가서 옷을 가따 노면 우리 집에 가따 노면 찾아 간다꼬 그러니까네 지서 경찰들은 날 갈다가 그 집 그 사람이랑 연락하는 겐다 이랬는거라 그래가 얽한목숨 애먹고 경찰에 안 갔더니 지서가 3일 딱 영창 살았는데

<표 8> 녹취기호³⁴⁾

녹취기호	설명
,	짧은 휴지
(1)	정적의 시간을 초로 표시
((웃음))	녹취자의 설명 예) ((목소리 커지며))
맞아요	강조 표시
맞아요	목소리 크게
‘맞아요’	목소리 작게
네:	들여질 때
아니요-,	말이 끊어짐
(...)	인용 시 생략
()	녹취 불가능 부분
(글쎄요)	불확실한 녹취
예=예	빠르게 연결될 때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그제 아니라	동시에 진행되는 언술

34) 녹취기호에 대해서는 이희영,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행위이론의 관점에서 본 이론적 의의와 방법론적 원칙」, 『한국사회학』 3(2005)을 참조하라.

이상과 같이 민간인학살사건의 구술기록 수집 절차와 주요 과정, 또 기록화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렇게 생산되어 기록화 되고 아카이빙 된 구술기록을 통해 실제 그 마을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유기적으로 복원시키고 재구성하는 역사화가 진행될 수 있으며, 그렇게 탄생된 새로운 기억은 공식기억에 대항하는 대항기억이 되어 새로운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4. 맺음말

사람들은 과거를 기억하기도 또 망각하기도 하면서 현재를 살아가고, 기억을 통해 과거를 상기하거나 재구성하기도 한다. 기억은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망각과 회상을 거치며 잊혀 지기도 윤색되기도 하며 정치적 상황이나 시대에 따라 재구성되고 변형된다. 그리고 집단기억은 권력과 사회적 담론이 투영되면서 ‘지배기억’이 되고 그것에 대항하는 기억은 ‘대항기억’으로써 지배기억과 다른 담론을 형성하며 사회에 또 다른 헤게모니를 형성하게 된다. 대항기억으로써의 역사는 구술로써 실체화 될 수 있으며 구술기록을 통한 기억의 역사화는 지배기억에 대한 대항기억의 발굴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에서 구술사는 더 이상 역사적 사실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한 학문이 아니고, 구술기록으로도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설득은 시대착오적인 외침이 되어버렸다. 현재에 구술사연구는 구술기록을 객관적 자료로 인정받기 위한 연구가 아니라, 구술기록을 분석하며 그에 대한 기억과 역사를 해석하는 질적연구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기억이론에 대한 논의와 기억의 역사화에서 다루었던 ‘언어로의 전환’과 ‘서사적 이론’을 바탕으로 시작된 구술기록의 텍스트연구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구술기록의 생산과 수집, 기록화와 관련해서 과거 구술기록을 양적으로 방대하게 만들기 위하여, 또 넘쳐나는 기억과 증언을 빨리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는 의욕으로 절차 없이 구술기록을 생산해내던 때와는 달리, 현재는 생산된 구술증언의 유기적인 기록화에 힘을 기울이고, 질 높은 구술기록을 생산해낼 수 있도록 면담에 대한 질적 연구와 함께 수집기획, 수집준비, 수집실행, 기록화 및 정리라는 구술기록의 생산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구술기록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위의 이론을 바탕으로 창수면 민간인학살사건 구술기록의 수집이 수집기획과 준비, 실행, 기록화 및 정리의 절차에 따라 수집이 이루어졌으며 그 중 질문지 형성의 밑바탕이 되는 문헌조사,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구술증언질문지, 구술자들의 구술을 수집한 현장조사, 수집된 증언을 기록화시키는 기록화과정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이렇게 구술기록을 통한 기억의 역사화 과정은 과거를 현재에서 재구성함으로써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연결체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글은 민간인 학살사건이라는 대항기억을 구술기록의 수집절차에 맞게 수집하여 기록화 하는 과정을 위와 같은 이론을 바탕으로 접근하여 실행한 것으로써 창수면이라는 장소에서 한국전쟁전후라는 시간, 마을 주민들이라는 집단기억을 현재에서 재구성하기 위한 이론적·방법론적 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1차사료

- 경상북도, 『영덕군 통계연보: 제 48호』 (경문사, 2008)
- 경상북도의회, 『양민학살진상규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동아문화사, 2000)
- 영덕경찰서, 『요시찰인명부』 (영덕경찰서, 1961)
- _____, 『순직경찰관대장』 (영덕경찰서, 1962)
- 영덕군, 『郡勢一斑』 (1939)
- 대한민국국회, 『제4대국회양민학살진상조사보고서』 (대한민국국회, 1961)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영덕지품면민간인희생사건 진실규명결정서』 (2008)
- _____, 『경북 영덕 국민보도연맹사건 진실규명결정서』 (2009)
- _____, 『국민보도연맹 사건 발굴·수집 자료』 (2009)
- 전현수 외, 『2009년 피해자현황조사 연구용역사업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 관련 개인별피해현황카드: 경상북도 영덕군』 (에드가, 2009)
- _____, 『2009년 피해자현황조사 연구용역사업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 관련 구술증언자료집: 경상북도 영덕군』 (에드가, 2009)
- _____, 『2009년 피해자현황조사 연구용역사업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 관련 최종결과보고서: 경상북도 영덕군』 (에드가, 2009)
- 지수걸 외, 『2009년 피해자현황조사 연구용역사업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 관련 최종결과보고서: 충청남도 예산군』 (에드가, 2009)
- 홍순권 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피해자현황조사용역사업 결과보고서』 (2007)

2. 연구논저

1) 단행본

- 강성호,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책세상, 2003)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국방부, 1967)
- _____, 『안강 · 포항전투』 (교학사, 1986)
- _____, 『대비정규전사(1945~1960)』 (국방부, 1998)
- 권귀숙, 『기억의 정치』 (문학과지성사, 2006)
- 김경학 외 지음, 『전쟁과 기억: 마을 공동체의 생애사』 (한울, 2005)
- 김기진, 『한국전쟁과 집단학살』 (푸른역사, 2006)
-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0)
- 김삼웅, 『해방후 양민학살사』 (가람, 1996)
- 김성칠, 정병준 해제, 『역사 앞에서』 (창비, 1993)
- 김학이, 김기봉 외, 『현대의 기억 속에서 민족을 상상하다』 (세종출판사, 2006)
- 김희곤, 『영덕의 독립운동사』 (성심, 2003)
- 남훈, 『영해유록』 (향토사연구회, 2004)
-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나남, 1996)
- 서중석, 『배반당한 한국의 민족주의』 (성균관대학교, 2004)
- 안병직 외, 『오늘의 역사학』 (한겨레출판, 1998)
- 알라이다 아스만, 변학수 · 백설자 · 채연숙 옮김, 『기억의 공간』 (경북대학교출판부, 2003)
- 영덕문화원, 『영덕군지』 (영덕군, 2002)
- 영덕문화원, 『창수면지』 (영덕군, 2009)
- 윤택림, 『인류학자의 과거여행: 한 빨갱이 마을의 역사를 찾아서』 (역사비평사, 2003)

- _____, 『문화와 역사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방법론』 (아르케, 2004)
- _____, 함한희, 『새로운 역사 쓰기를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 (아르케, 2006)
- 이상태, 『현황과 방법, 구술·구술자료·구술사』 (국사편찬위원회, 2004)
- 이영남, 『푸코에게 역사의 문법을 배우다』 (푸른역사, 2007)
- 이정식, 『대한민국의 기원』 (일조각, 2006)
-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휴머니스트, 2005)
- 정길화, 『기록의 힘, 증언의 힘』 (시대의 창, 2009)
- 조현연, 『한국 현대정치의 악몽: 국가폭력』 (책세상, 2000)
- 최정기 외 지음, 『전쟁과 재현: 마을 공동체의 고통과 그 대면』 (한울, 2008)
- 최정태, 『기록학개론』 (아세아문화사, 2006)
- 최호근, 『체노사이드: 학살과 은폐의 역사』 (책세상, 2005)
- 표인주 외 지음, 『전쟁과 사람들: 아래로부터의 한국전쟁 연구』 (한울, 2005)
- 한국구술사연구회, 『구술사 방법과 사례』 (선인, 2005)
-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경북편』 (한글학회, 1979)
- 데이비드 로웬달, 김종원 · 한명숙 옮김, 『과거는 낯선 나라다』 (개마고원, 2006)
- 데이비드 캐너다인, 문화사학회 옮김, 『굿바이 E. H. 카』 (푸른역사, 2005)
- 라인하르트 코젤렉, 한철 옮김, 『지나간 미래』 (문학동네, 1998)
- 루츠 니트함머, 이동기 옮김, 『역사에서 도피한 거인들』 (박종철출판사, 2001)
- 미셸 푸코, 이정우 옮김, 『지식의 고고학』 (민음사, 2000)
- 베르그송, 김재희 옮김, 『물질과 기억』 (살림, 2008)
- 브루스 커밍스, 김자동 옮김, 『한국전쟁의 기원』 (일월서각, 1986)

- _____, 김동노 옮김,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현대사』 (창비, 2001)
- 스칼라피노 · 이정식, 한홍구 옮김, 『한국공산주의운동사2: 해방 후 편 (1945-53)』 (돌베개, 1986)
- 에릭 홉스봄, 강성호 옮김, 『역사론』 (민음사, 2002)
- Olick, Jeffrey K,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엮음, 『국가와 기억』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
- 윌터 J. 옹, 이기우 · 임명진 옮김,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1995)
- E. H. 카, 박종국 옮김, 『역사란 무엇인가』 (육문사, 2007)
- James M. O' Toole, 이승억 옮김, 『기록의 이해』 (진리탐구, 2004)
- 제임스 홉스, 유병용 옮김, 『증언사 입문』 (한울, 1995)
- 하비 케이, 오인영 옮김, 『과거의 힘: 역사의식, 기억과 상상력』 (삼인, 2004)
- 허버트 허시, 강성현 옮김, 『제노사이드와 기억의 정치』 (책세상, 2009)
- Jan Vansina, *Oral tradition as History*, Wisconsin University Press, 1985.
- Maurice Halbwachs, *On Collective Memory*, Chicago University Press, 1992.
- Paul Thompson, *The Voice of the Past: Oral History*,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 Peter L. Berger and Thomas Luckman,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a treatise in the sociology of knowledge*, Penguin Books, 1967.
- Thomas L. Charlton, ed, *Handbook of oral history*, AltaMira Press, 2006.,
- _____, *History of oral history*, AltaMira Press, 2007.
- Valerie Raleigh Yow, *Recording Oral History*, AltaMira Press, 2000.

2) 연구논문

- 권미현, 「강제동원 구술자료의 관리와 활용」, 『기록학연구』 16(2007)
- 김귀옥, 「구술사 연구현황과 구술사 아카이브즈의 구축」, 『기록학과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05),
_____, 「지역의 한국전쟁 경험과 지역사회의 변화: 강화도 교동 섬 주민의 한국전쟁 기억을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71(2006)
- 김동춘, 「‘이제는 말할 수 있다’와 ‘기억의 정치」, 『한국헌론정보학회』 (2002)
_____, 「20세기 한국에서의 제노사이드」, 『4.3과 역사』 5(2005)
- 김득중, 「한국전쟁전후의 민간인 학살: 과거청산, 우리 역사의 전환점」, 『내일을 여는 역사』 18(2004)
_____, 「민간인 학살 기록현황과 수집·관리방안」, 『한국기록학회』 (2005)
- 김봉중, 「미국 구술사의 동향과 쟁점」, 『전남사학』 16(2001)
- 김영범, 「알박스의 기억사회학연구」, 『사회과학연구』 6(1999)
- 김학이, 「얀 아스만의 문화적기억」, 『서양사연구』 33(2005)
- 나인호, 「라인하르트 코젤락과 근대」, 『서양사연구』 33(2005)
- 남신동, 「구술사와 기억의 역사사회학1, 2」, 『교육비평』 20(2006)
- 박정석, 「전쟁과 빨갱이에 대한 집단기억 읽기: 해남의 한 마을을 중심으로」, 『역사비평』 2(2002)
- 안병직, 「한국사회에서의 ‘기억’과 ‘역사」, 『역사학보』 193(2007)
_____, 「홀로코스트의 기억과 역사가」, 『독일연구』 14(2007)
- 양호환, 「집단기억, 역사의식, 역사연구」, 『역사교육』 109(2009)
- 염미경, 「전쟁 연구와 구술사: 아래로부터의 한국전쟁연구를 위한 새로운 방법론」, 『동향과 전망』 51(2001)
_____, 「지방사연구에서 구술사의 활용현황과 과제」, 『역사교육』

98(2006)

- 윤택림, 「기억에서 역사로」, 『한국문화인류학』 25(1994)
- 이상민, 「역사를 위하여: 아키비스트와 역사가의 역할」, 『기록학연구』 6(2002),
- 이용기, 「마을에서의 한국전쟁 경험과 그 기억: 경기도의 한 ‘모스크바’ 마을사례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6(2001)
- _____, 「구술사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한 제언」, 『역사비평』 1(2002)
- _____, 「역사학, 구술사를 만나다」, 『역사와현실』 71(2009)
- 이용재, 「피에르 노라와 기억의 터전」, 『역사비평』 66(2004)
- 이희영,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행위이론의 관점에서 본 이론적 의의와 방법론적 원칙」, 『한국사회학』 제39집 3호(2005)
- _____, 「체화된 폭력과 세대 간의 소통」, 『경제와사회』 68(2005)
- 전진성, 「역사와 기억: “기억의 터”에 대한 최근 독일에서의 논의」, 『서양사론』 72(2002)
- 전현수, 「외교문서 관리제도의 개선 방향」, 『기록학연구』 13(2006)
- _____, 「민주화 이후의 과거청산」, 『한국행정학회』 (2009)
- 정병준, 「한국전쟁 초기 국민보도연맹원 예비검속·학살사건의 배경」, 『역사와현실』 54(2004)
- 최호근, 「집단기억과 역사」, 『역사교육』 85(2003)
- 나당 바슈텔, 윤택림 옮김, 「기억과 역사 사이에서: 서론」, 『역사연구』 9(2001)
- Popular Memory Group, "Popular Memory: Theory, Politics, Method" in Johnson, et al. eds. *Making Histories*, University of Minnesota. 1982.

3) 학위논문

- 권명숙, 「구술기록의 수집 절차에 관한 연구: 민간인 학살사건 도큐멘테이션을 중심으로」, 2007, 경북대학교대학원 기록학 석사학위논문.
- 권미현, 「구술사료의 기록학적 관리 방법연구」, 2003,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 석사학위논문.
- 노용석, 「민간인 학살을 통해 본 지역민의 국가인식과 국가권력의 형성: 경상북도 청도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2004, 영남대학교 대학원 문화인류학과 박사학위논문.
- 오동석, 「기록관리의 국가·사회적 역할: 민족주의·초민족주의와 집단적 기억을 중심으로」, 2008,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정영란, 「홀로코스트기념관을 통해본 주제기록관에 관한 연구: 집합적기억의 수집과 수집물의 특성을 중심으로」, 2003,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 석사학위논문.
- 차정민, 「한국과 일본의 공동의 기억형성과 기록관리: 한·일 양국의 강제동원 관련기록물의 수집과 활용을 중심으로」, 2008,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최광호, 「기록의 특성에 관한 연구: 행위반영성·커뮤니케이션적 특성·상징성·시간성」, 2003,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 석사학위논문.

ABSTRACT

Historicizing of the Civilian Massacre through oral history

Lee, Ju-Young

This study was designed for a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discussion on a methodological medium, orality to historicize the ‘Civilian Massacre’, of countless counter-memories which are inherent in Korean society.

In other words, prior to collection of oral sources, it is to produce reliable oral history through a discussion on oral history research methodology and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of oral history, after theorizing occurrence process of dominant-memory and counter-memory, orality’s meanings as a counter-memory and the necessity for historicization of neglected memories, focusing on a ‘memory’ which is a fundamental background of an ‘oral’ act.

Based on this basic process, oral recording process was performed in Changsoo-myeon, Yeongdeok-gun, Kyung-book Province where was selected as a research target for the civilian massacre that is a case to figure out what kind of high-quality record is produced, with a precise understanding of a particular methodology, oral history.

Key words: Counter-Memory, Oral History, Oral Record, Documentation, Civilian Massacre, Historicizing.